

# 식물을 이용한 오수중의 영양염류 제거특성

이용두·김현희

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

## 1. 서론

재래식 오수 및 하수처리법은 유기물의 처리효율이 높은 장점은 있으나 건설비용이나 장비투자, 운영과 유지상 에너지 경비 요구가 높고, 특히 질소나 인에 대한 처리는 매우 낮아 미처리된 방류수의 질소와 인이 식수원인 호수에 유입되었을 때 호수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.

수역의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이라고 밝혀진 질소와 인을 수생식물을 활용하여 제거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넓게 행해지고 있고, 부레옥잠(water hyacinth)을 시초로 한 식물을 심은 정화처리법에 의한 처리효율의 검토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.

그러나 기존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레옥잠이나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성장후의 처분과 저온기의 고사 문제 등이 있어 그 활용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고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유용식물의 활용이 고려되어지고 있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Amaryllis(Amaryllis belladonna L.)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장(접촉산화법) 방류수에서 수경재배의 가능성과 영양염류 제거특성을 갈대와 비교, 검토하고자 한다.

## 2. 실험방법

제주대학교 오수처리장에서의 유출수를 Fig.1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,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처리수를 원수로 이용하여 행하였다. 식물을 재배하는 반응조는 아크릴로  $0.3m \times 1.8m \times 0.3m$ 로 제작하였고, 반응조내에 20cm 높이로 Activated Carbon(활성탄, 이하 A.C라고 함)을 채워 두개의 반응조에 각각 Amaryllis와 갈대를 10cm간격으로 두 줄로 심었다. 또 하나의 반응조는 비교 반응조로 이용하였다. 실험은 원수를 채운 상태에서 10일간 회분식으로 실험을 행

하였고, 시료는 매일 아침 약 100ml 정도 채수하였다. 실험항목은 pH, VSS, NH<sub>3</sub>-N, T-P, BOD<sub>5</sub>, COD, T-N을 공정시험법에 따라 실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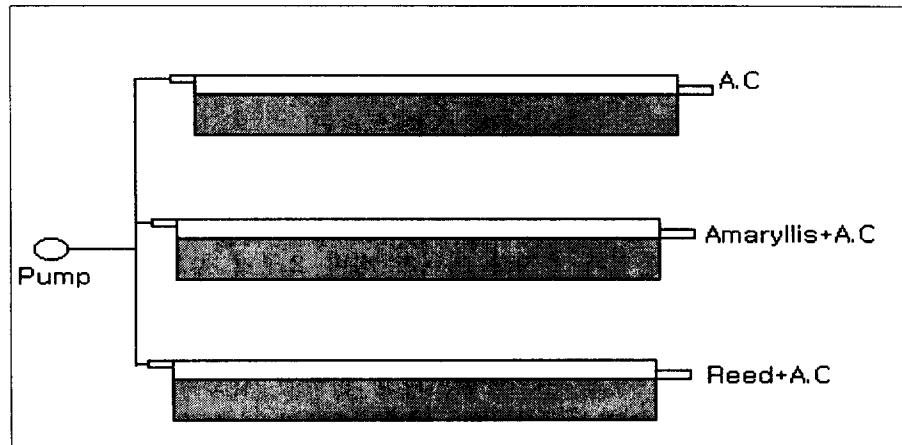


Fig.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.

### 3. 결과 및 고찰

#### 3.1. pH 변화

각 반응조에서 pH 변화는 Fig.2와 같다. pH의 범위는 7.7-9.0 정도이며, 그림에서 보면 원수 pH보다 반응조내의 pH가 약간 높고, 초기에 급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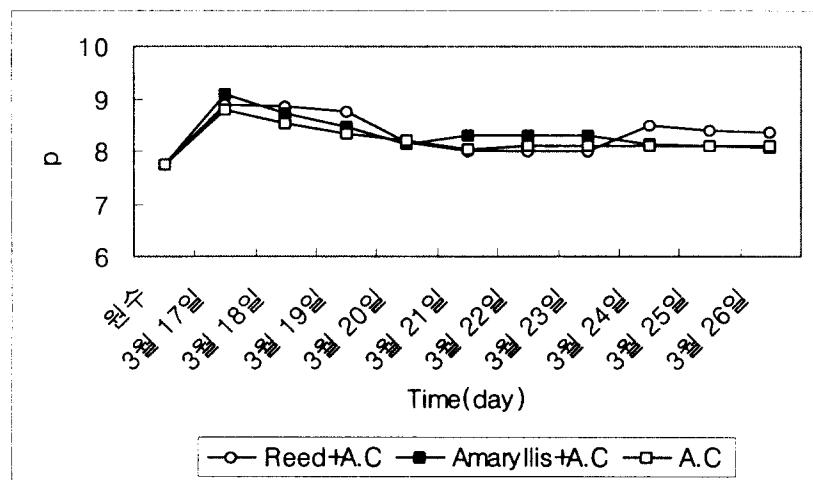


Fig.2 Daily variation of pH

### 3.2. NH<sub>3</sub>-N 변화

시간에 따른 NH<sub>3</sub>-N의 변화는 Fig.3과 같다. 그림에서 보면 Amaryllis+A.C의 제거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Reed(갈대)+A.C은 A.C만 넣은 장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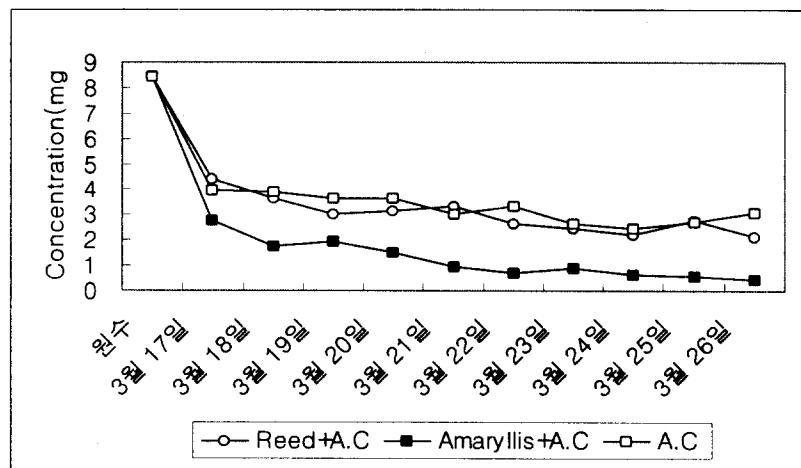


Fig.3 Daily variation of NH<sub>3</sub>-N

### 3.3 각 장치별 T-P 농도 변화

Fig.4는 각 장치별 T-P 농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. 그림에서 보면 T-P 농도 변화는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. 식물의 인 섭취는 성장이 활성할 때만 소량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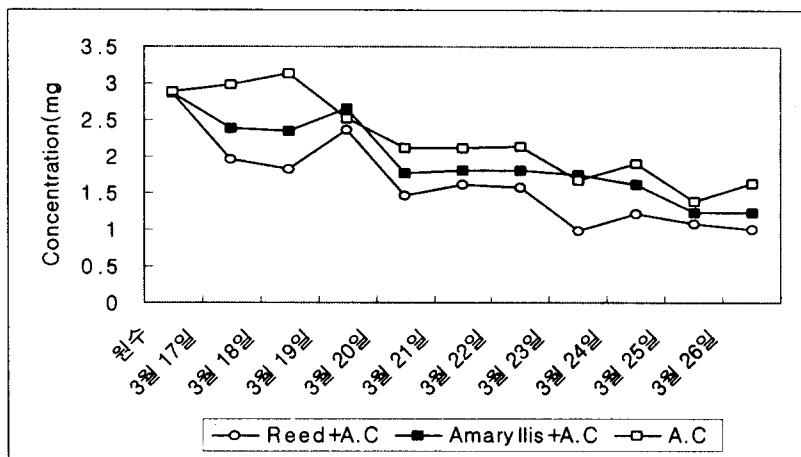


Fig.4 Daily variation of T-P

### 4. 결론

식물을 이용한 장치에 의한 영양염류 제거에 관한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.

- 1) pH 변화 양상은 초기에 상승하며, 72시간 후에는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.
- 2)  $\text{NH}_3\text{-N}$  제거효과를 살펴보면  $\text{Amaryllis+A.C.} \approx 95\%$ ,  $\text{갈대+A.C.} \approx 75\%$ ,  $\text{A.C.} \approx 71\%$ 로 나타났고,  $\text{Amaryllis+A.C.}$ 에 의한 제거효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
- 3) T-P 제거효율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차근이 완벽하지 못하고 성장이 느린 관계로 큰 차이는 없었다.

### 5. 참고문헌

宗宮 功외 3인(1990), 下水二次處理水による花卉植物の水耕栽培に関する研

- 究, 下水道協会誌, Vol.27, No.316, pp.45-52.
- 津野 洋 외 3인(1990), 花卉植物の水耕栽培による下水二次處理水からのりん  
及び窒素の除去に関する研究, 下水道協会誌, Vol.27, No.316, pp.53-60.
- 平野 浩二(1994), 地面浄化槽處理水による花卉の水耕栽培と栄養塩除去, 用水  
と廃水, Vol.36, No.7, pp.19-28.
- 鈴木 淳 외 4인, 水生植物(マコモ)を利用した水質改善の試み, 用水と廃水,  
Vol.37, No.11, pp.892-899, 1995.
- Hans Brix(1986) Treatment of wastewater in the rhizosphere of wetland  
plants-The Rootzone Method, Wat.Sci.Tech., pp.107-118.
- C.Boutin(1987),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in tanks planted with  
rooted macrophytes:Case study;Description of the system;Design  
criteria; and efficiency, Wat.Sci.Tech., Vol.19, No.10, pp.29-40.
- Lucy M. Conhley, Richard I.Dick, Leonard.Lion, An assessment of the  
root zone method of wastewater treatment, Research Jormal WPCF,  
Vo.63, No.3, pp.239-247.
- 안윤주 · 공동수(1994), 생이가래를 利用한 營養物質의 除去方案 研究, 대한  
환경공학회 추계연구발표 초록집, pp.487-492.
- 이병현 외 2인, 조류 성장이 부레옥잠을 이용한 폐수처리공법의 유출수에 미  
치는 영향, 한국환경과학회지, Vol.1, No.1, pp.81-92, 1992.
- 수생식물을 활용한 라군에 의한 오수처리, 첨단환경기술, Vol.3, No.10,  
pp.89-93, 1996.